

제1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9. 18)

시 정 질 문

질문의원	제 목	답변자/ 출석공무원
김강수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市長)의 시각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이금자	보건소장 장기 공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 시장, 자치행정과장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강 수	서 명	
제 목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市長)의 시각에 대하여	담당실과	기획감사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속초시의회 제161회 정례회에서 시장님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책 강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동료의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단인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책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며 직원의 특별채용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속히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한점 의혹도 없이 말씀하게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공단경영책에 대하여 의회에서 소상히 밝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규정, 즉 시의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이 때 시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의 개시 전까지 통지하고 대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인용하여, 당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온천경영인 대회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을 “특별한 사유”로 들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 출석·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한 선진 외국 자치단체에서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지난 7월 20일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단서조항의 “특별한 사유”를 들어 부시장님을 대신 출석·답변하게 하였는데 그 사유가 과연 적절하였는지,

두 번째, 우리시의 통할대표권, 선결처분,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시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상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와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때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대(對)의 회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18 (火)

第162回 束草市議會(臨時會)

市政質問 答辯書

—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에 대하여(김강수 의원) —

束 草 市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제 목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市長)의 시각에 대하여	답 변 자	시 장
《 질문요지 》 ○ 시장께서 지난 7월 20일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단서조항의 “특별한 사유”를 들어 부시장을 대신 출석·답변하게 하였는데 그 사유가 과연 적절하였는지? ○ 市の 통할대표권, 선결처분,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상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와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때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대(對)의회상에 대하여 답변?			
《 답변내용 》 ○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의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市長)의 시각에 대하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 市 행정에서 있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등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6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지난 7. 20일은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2개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는 「전국 온천경영인 대회」와 오후 4시30분 평창에서 강원도지사가 주재하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였습니다.

- 저는 속초시가 온천을 테마로 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쪼개 두 회의에 모두 참석코자 노력하였으나 「전국 온천경영인 대회」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불 참가를 포기하고 동일 오후에 개최되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 특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 이후 재도전 문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부득이 부시장이 시정질문에 대리 출석·답변하게 되었던 점을 김강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직접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市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협조요청, 의견진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중요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對의회 설명회를 통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의회 참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기적 간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은 물론, 부시장과 실과소장들이 직접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정기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年 두차례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추적 확인하는 등 의회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사후보고도 철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정례회와 송년행사, 신년인사회 등 다양한 협력행사를 통해 의회와의 비공식적인 의견교환 기회도 확대시켜 나가고 정책의 수립·집행·환류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책결정이나 현안문제 해결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對의회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양수레바퀴에 비유됩니다. 수레바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잘 달릴 수 없으며, 양쪽이 균형을 유지해 평행선을 이루고 달릴 때 힘차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란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신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양대축의 하나인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소 공직자는 의회를 통한 참 민의를 수렴하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시장을 비롯한 쏘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 모두가 공동체적 인식아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는 시민에 가장 가까이 밀착된 자치제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하려면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91년 4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는 물론 시민 본위의 행정정착과 지역발전의 가속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속초시의회는 자치환경이 열악한 제약 조건속에서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온 결과, 속초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숙기를 지나 완숙기의 지평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 아울러, 의회는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두 번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정의 주요 업무를 시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성숙하고 상생하는 가장 모범적인 對의회 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생발전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의회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